

*사진 출처 : 안양감리교회



numbers
vol. 251

고령 교인 신앙과 시니어 목회 실태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소그룹!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 ①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실태
- ② 학교폭력 실태

[넘버즈 칼럼]

외로움의 시대와 교회

2024. 8. 13.

목회데이터연구소

우리는 더 나은 정보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듭니다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소그룹!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0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예상한 시점(2025년)보다 더 앞당겨진 결과이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우리 사회보다 더 심각한데, 교회 출석자 중 60대 이상 비중은 52%로 일반 국민의 32%보다 크게 높다*. 고령 교인 목회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고 있다.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2년, 목회데이터연구소는 미래 목회와말씀연구원, 아드폰테스와 함께 '고령 교인의 신앙 의식'을 공동으로 기획하여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넘버즈 159호), 이번에 만 2년 만에 목회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적 조사 결과를 지난 7월 31일 세미나를 통해 발표했다.

주요 결과를 보면, 2년 전 조사 대비 직분 은퇴 전 고령 교인의 사역 지속에 대한 욕구가 증가해 고령 교인의 사역 의지는 지속될 것임을 예고했고, 소그룹 참석자의 경우 출석교회 고령친화성을 더 높이 평가해 소그룹 활동이 노인 목회의 기초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넘버즈 224호



일러두기

-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고령 교인 신앙과 시니어 목회 실태

조사개요

구분	시니어교인 조사	목회자 조사
조사 대상	아드폰테스/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한국 기독교시니어사역 연합 참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전국의 담임목사
표집틀		목회데이터연구소 마스터샘플) - 2024년 4월 기준 약 20,000명
조사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노우볼링 방식 1단계 : 교회 목회자에게 설문URL 전달 2단계 : 교회 목회자가 해당 교회 고령 교인에게 설문 링크 전달(모바일 조사) 또는 종이 설문 조사(자기 기입식) 	모바일 조사(문자를 통해 URL발송)
표본 규모	총 1,500명 (유효 표본) - 총 45개 교회	총 500명 (유효 표본)
표본 추출 방법	스노우볼 추출 (Snowball Sampling)	편의 추출 (Convenience Sampling)
자료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일부 교회의 응답 편향(과표집)을 방지하 기 위해 50표본 이상 응답된 교회의 응답 수를 50으로 고정하여 가중치 부여 총 1,500명을 조사했으나 가중치 적용 후 942명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집된 자료는 통계 패키지 SPSS 18.0 for Windows로 분석함 • 전국의 교회 규모를 고려한 가중치 부여
조사 기간	2024년 5월 1일 ~ 6월 12일 (42일간)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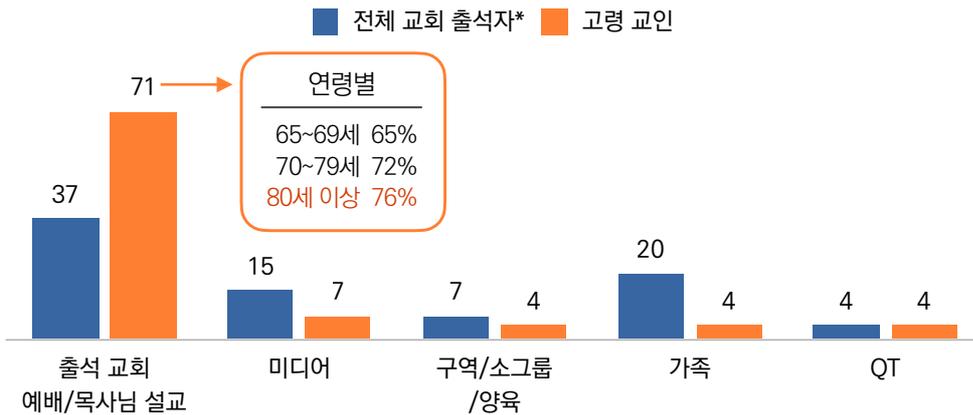
01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고령 교인의 신앙, 출석 교회 목회자의 영향 압도적으로 높아

- 고령 교인이 신앙 성장에 가장 도움을 받는 것은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가 71%로 다른 요인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를 전체 교인 조사 결과(37%)와 비교해 보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치이다. 고령 교인에 대한 출석 교회 목회자의 높은 영향력을 알 수 있는 데이터라 하겠다.
-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를 선택한 비율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그림]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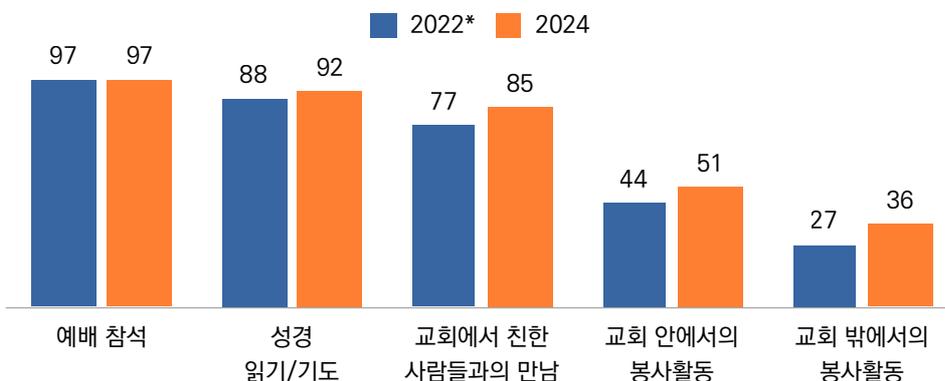


*전체 교회 출석자 :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한국기독교분석리포트」, 서울:대한기독교서회, 2023.06.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 2,000명, 온라인 조사, 2023.01.09.~01.16.)

고령 교인의 예배 외 교회활동, 2022년 대비 더 활발해져!

- 신앙생활에 해당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얼마나 자주 하는지 각각 물었다. 가장 많이 하는 신앙 활동으로는 ‘예배 참석’ 97%, ‘성경 읽기/기도’ 92%,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85% 순으로 나타났다.
- 2년 전 조사와 비교해 보면, ‘교회에서 친한 사람들과의 만남’, ‘교회 안/밖 봉사활동’ 등 예배 외 활동률이 높아졌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 제약 요소가 사라지고, 고령 교인의 신앙 활동이 더 활발하게 변모했음을 보여준다.

[그림] 신앙 활동 비율 (65세 이상 교인, '가끔+자주 한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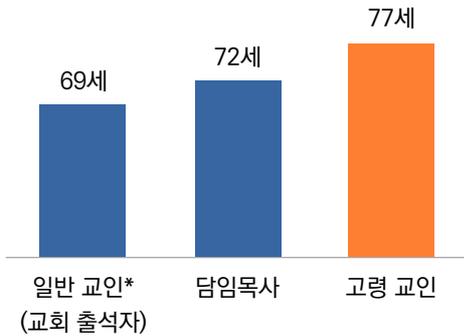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고령 교인, 일반 교인과 목회자 생각보다 더 오래 사역하고 싶어!

- 고령 교인에게 교회의 사역이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최대 나이를 묻은 결과 77세로 나타났다. 이는 담임목사와 전체 교인들이 생각하는 나이보다 많았는데, 담임목사는 72세, 일반 교인은 69세를 사역의 최대 나이로 보고 있었다.
- 목회자나 교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령 교인들은 더 오래 사역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그만큼 사역 의지가 강함을 엿볼 수 있다.

[그림] 고령 교인의 사역활동 상한 연령 인식 (평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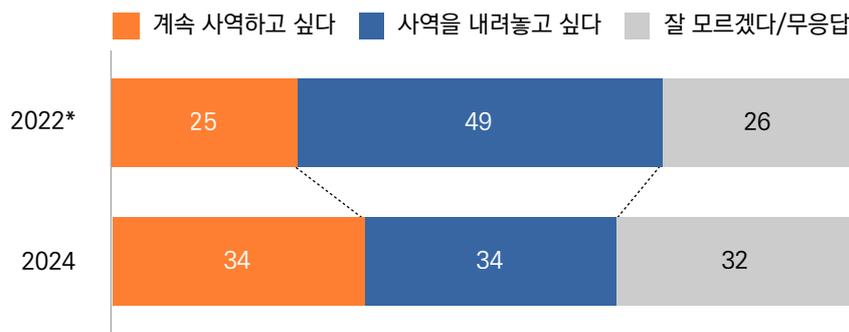


*일반 교인 : 목회데이터연구소, '개신교인의 신앙의식 조사', 2024.06.(전국 만 19세 이상 교회출석자 1,000명, 온라인 조사, 2024.05.14.~05.22.)

은퇴 앞둔 고령 교인, '은퇴 후에도 계속 사역하고 싶다' 증가!

- 교회 직분 은퇴 나이는 대부분 70세이다. 은퇴 시기 전후 고령 교인의 사역과 역할 인식을 살펴본다. 먼저 70세 이하 고령 교인에게 '70세가 되어 건강이 허락할 경우 교회 사역을 계속하고 싶은지' 물어보았다. '계속 사역하고 싶다'가 34%로 2년 전 조사 결과(25%) 대비 증가한 반면, '사역을 내려놓고 싶다'는 줄었다. (2022년 49% → 2024년 34%)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사역 희망 여부 (65~70세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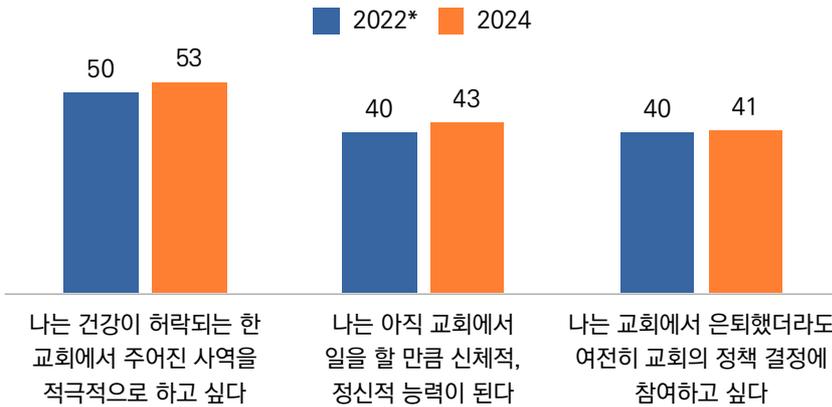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은퇴 고령 교인 41%, 은퇴 했어도 교회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

- 이번에는 교회 직분 은퇴 후인 71세 이상 교인에게 은퇴 후 교회 사역에 대한 인식을 물었다. '나는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에 대해 71세 이상 교인의 절반 이상인 53%가 '그렇다'고 응답했고, '나는 아직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나는 교회에서 은퇴했다라도 여전히 교회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고 싶다'에 각각 43%, 41%의 동의율을 보였다.
- 2022년 조사 결과와 비교해보면 비슷하거나 약간 증가했다.

[그림] 직분 은퇴 후 교회 역할 변화에 대한 인식 (71세 이상 교인, '그렇다' 비율, %)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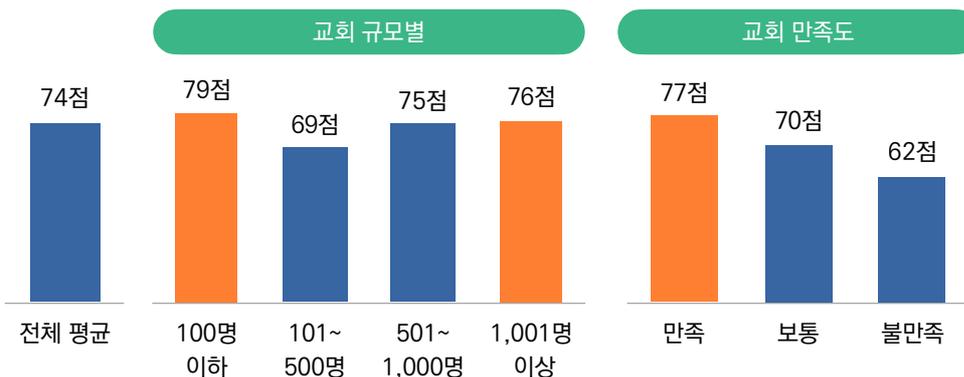
02

[고령친화교회]

고령 교인이 평가하는 출석 교회의 고령친화 적합도는 74점!

- 고령친화교회(Age Friendly Churches)란 아무리 나이가 들더라도 소외되거나 배제됨 없이 고령 교인이 자신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남은 삶을 활력과 소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과 지원체계를 갖춘 교회를 말한다. 출석하는 교회가 고령자에게 얼마나 적합한지 100점 만점으로 평가토록 한 결과, 평균 74점으로 나타났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100명 이하' 교회와 '1001명 이상' 교회가 상대적으로 고령친화 적합도 점수가 높았다. 소형 교회의 경우 목회자와의 친밀도 측면에서, 중대형 교회의 경우 프로그램 등의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적합도를 높게 평가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교회 만족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는데 교회의 고령친화성이 고령 교인의 교회 만족도와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데이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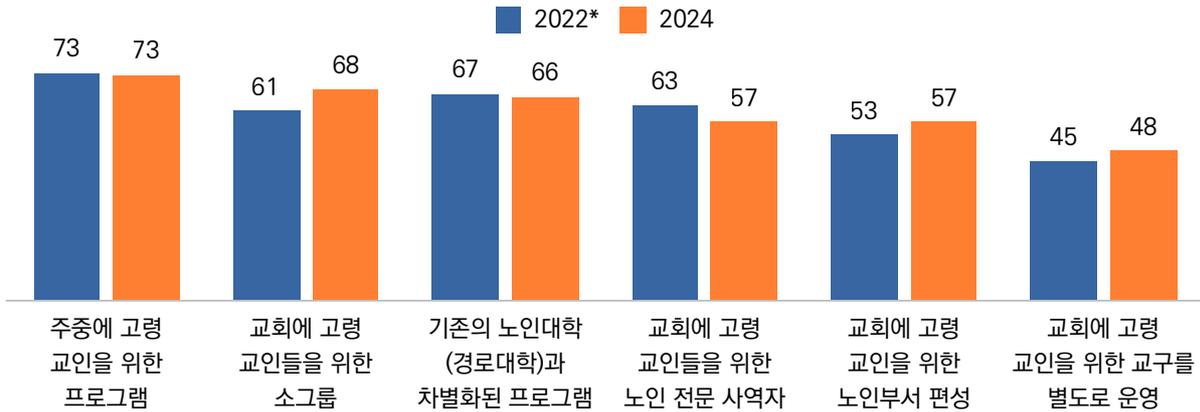
[그림] 출석교회 고령친화 적합도 평가 (65세 이상 교인, 평균)



고령 교인을 위한 교회 정책, ‘주중 프로그램’ > ‘소그룹’!

- 고령 교인을 위한 교회의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필요성을 물어보았다. 필요성이 가장 높은 정책은 ‘고령 교인을 위한 주중 프로그램(73%)’이었고, 다음으로 ‘교회에 고령 교인들을 위한 소그룹(68%)’, ‘기존의 노인 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66%)’ 순이었다.
- 2022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소그룹’과 ‘노인부서 편성’, ‘고령 교인을 위한 별도의 교구 운영’ 비율이 높아졌는데, 연령별 특성과 노년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다양한 소그룹 편성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고령 교인에 대한 교회 정책의 필요성 (65세 이상 교인, ‘필요하다’ 응답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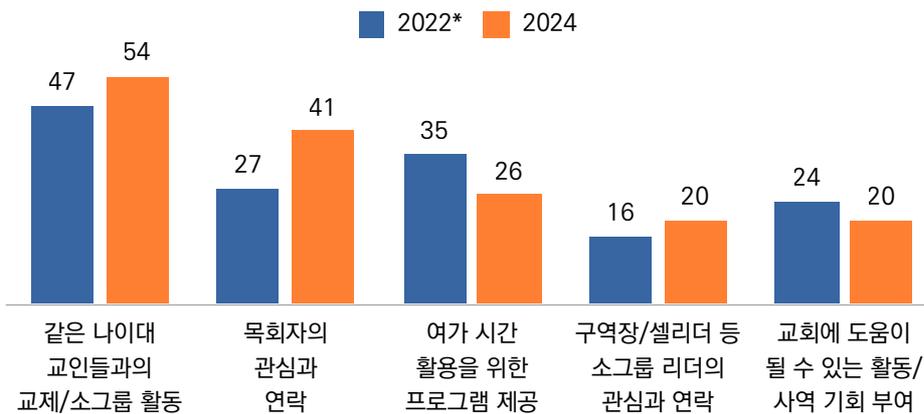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소그룹 욕구, 2022년 대비 상승!

-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 사항을 보면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이 54%로 2년 전 조사 대비 증가했다. 이는 앞서 언급한 고령 노인에게 다양한 성격의 소그룹 편성이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 2위로 응답된 ‘목회자의 관심과 연락’ 비율은 2년 전 조사 대비 가장 크게 증가(14%p)했는데, 고령 교인에 대한 목회자의 영향력과 노인의 외로움과도 관련이 있기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그림]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 (65세 이상 교인, 1+2순위, 상위 5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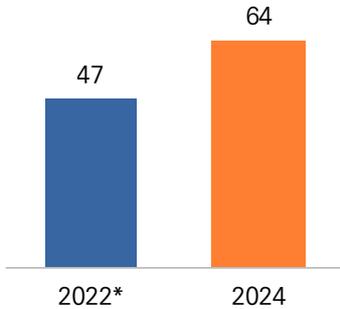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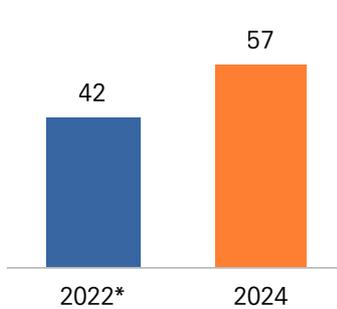
실제 고령 교인의 정기적 소그룹 활동, 2022년 대비 크게 늘어!

- 교회에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이 있는 경우는 64%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대비 17%p나 증가한 수치다.
- 한편, 고령 교인 소그룹이 있는 교회의 응답자의 '정기적 참여' 비율을 확인한 결과, 절반이 넘는 57%로 나타났다. 정기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는 비율 역시 2년 전 대비 증가했다(15%p).

[그림] 고령 교인을 위한 소그룹 존재 비율
(65세 이상 교인, %)



[그림] 소그룹 정기적 참여 비율
(고령 교인 소그룹 있는 교회의 65세 이상 교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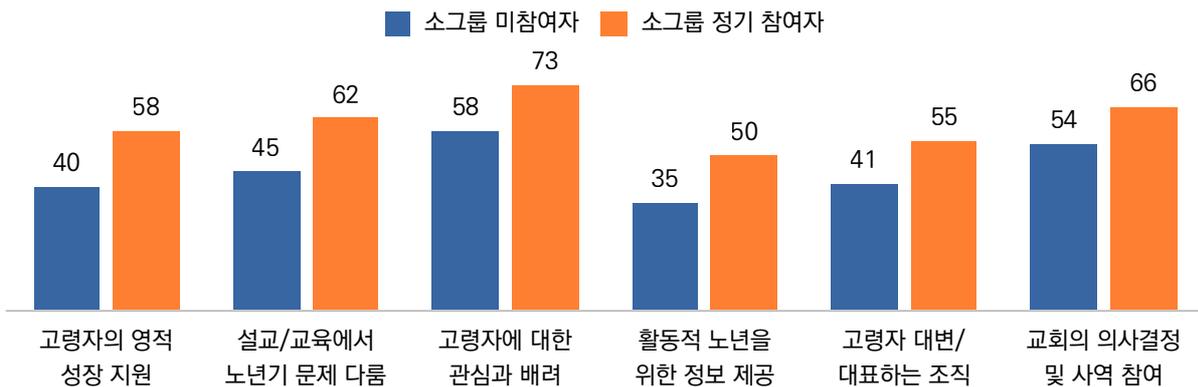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소그룹 참여,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 소속 교회의 고령친화성 평가 결과에 대해 응답자의 소그룹 참여 여부별로 '긍정률'을 비교해보니, 소그룹 정기 참여자가 소그룹 미참여자 대비 모든 항목에서 긍정률이 높았다. 이는 소그룹 참여자가 미참여자보다 소속교회가 고령친화교회라고 더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고령친화교회는 소그룹이 기초가 됨을 알 수 있다.
- 두 그룹 간 가장 큰 차이를 보인 항목은 '고령자의 영적 성장 지원'과 '설교/교육에서 노년기 문제 다룸'으로 17~18%p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출석교회 고령친화성 평가: 소그룹 정기적 참여자 vs 소그룹 미참여자 (65세 이상 교인, '그렇다'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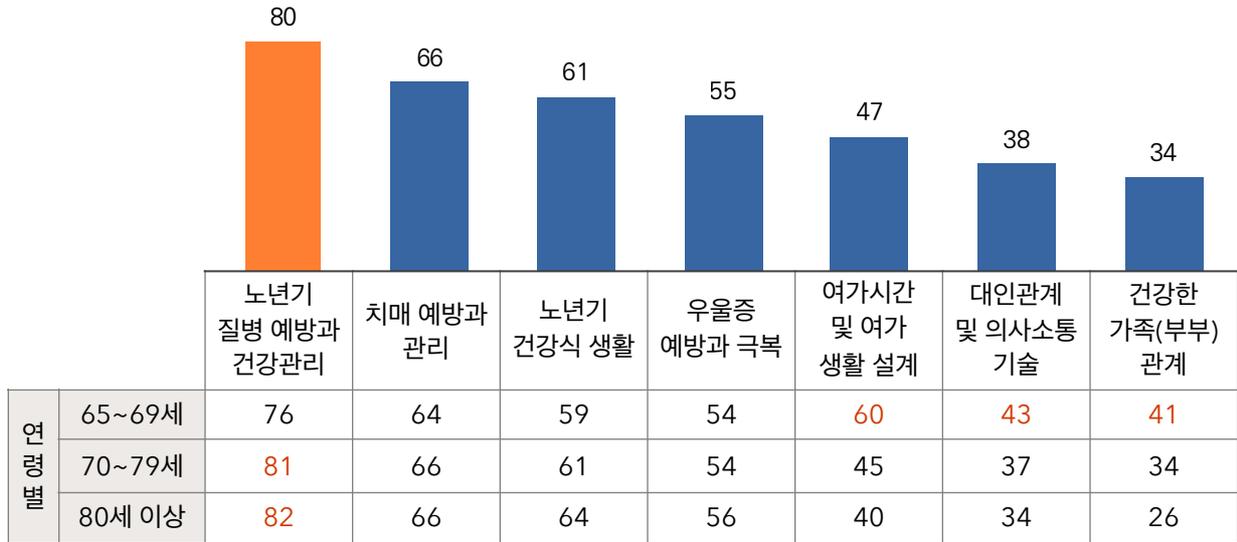


Note) 총 13개의 평가 항목 중 두 그룹의 결과 차이가 큰 항목 상위 6개임

연령대 낮은 노인일수록 대외 활동을 위한 교육 더 원해

- 고령 교인에게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은 무엇일까? ‘노년기 질병 예방과 건강관리’, ‘치매 예방과 관리’, ‘노년기 건강식 생활’, ‘우울증 예방과 극복’ 등 주로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관한 주제가 높게 나타났다.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65~69세의 경우 ‘여가시간 및 여가 생활 설계’, ‘대인관계 및 의사소통 기술’ 등 보다 활동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주제들이 타 연령대 대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노년기 교육 기획 시 연령별로 세분화된 프로그램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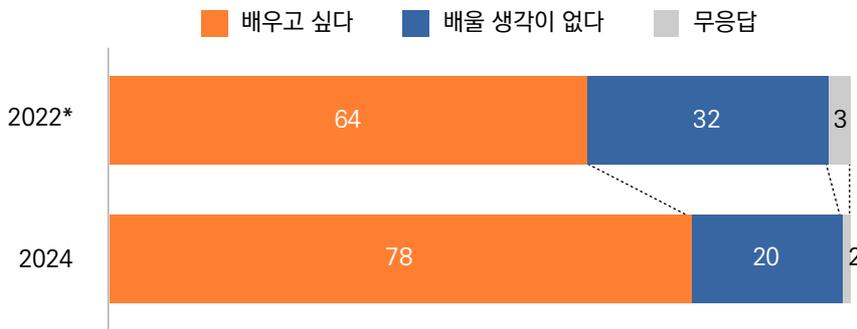
[그림] 현재 필요한 노년기 교육 (65세 이상 교인, 중복응답, 상위 7위, %)



‘죽음에 대한 교육 받고 싶다’, 2022년 보다 증가

- 교회에서 죽음에 대한 강의나 교육을 한다면 배울 의향이 있는지 물었더니 ‘배우고 싶다’는 응답이 78%로 대부분의 고령 교인이 관심을 보였다. ‘죽음 교육을 받을 의향률’은 2년 전 조사 결과(64%)보다 더 높아졌는데, 기대 수명과 함께 노후 기간도 늘어남에 따라 ‘웰다잉’ 욕구도 커지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크리스천 신앙관에 맞는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죽음에 대한 교육 받을 의향 (65세 이상 교인, %)



*2022년 :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아드폰테스/목회데이터연구소, ‘고령 교인의 신앙 생활 및 인식 조사’, (교회의 만 65세 이상 남녀 성도 2,045명, 모바일 조사 /종이 설문지 자기 기입식 조사 병행, 2022.05.18.~0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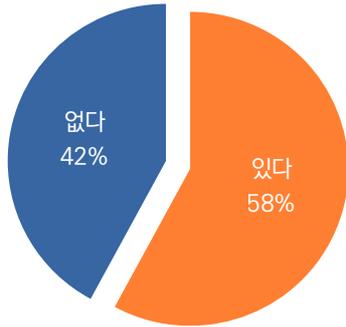
03

[목회자의 노인 목회 인식]

최근 1년간 노년 주제 설교/교육 실시한 목회자, 10명 중 6명!

- 이번에는 담임목사 대상으로 노인 목회에 대한 실태와 인식을 살펴본다. 최근 1년간 노년 주제 설교 및 교육을 실시한 적이 있는지를 물어본 결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10명 중 6명(58%) 정도로 나타났다.
- 노년 주제 설교/교육을 실시한 비율은 담임목사의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경향을 보였고, '대도시', 시무교회 규모 '500명 이상'인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림] 1년간 노년 주제 설교 및 교육 여부 (담임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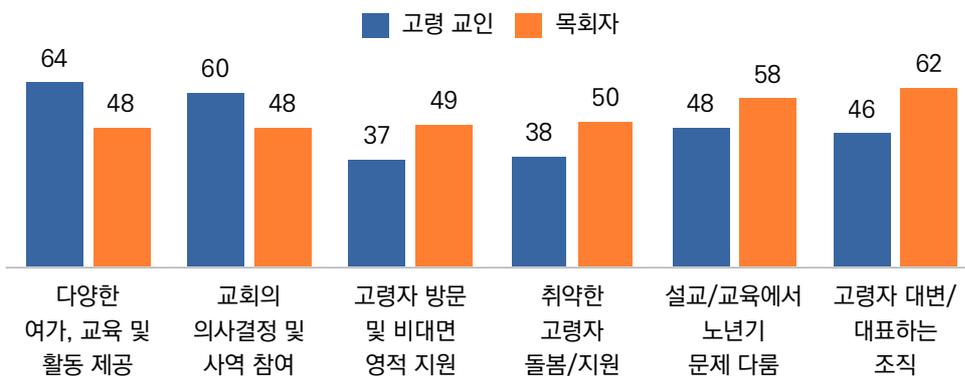
[그림] 응답자 특성별 노년 주제 설교 및 교육 실시율 (담임목사, '있다' 응답률)

연령별	49세 이하	50%
	50대	58%
60세 이상	69%	
지역크기	대도시	63%
	중소도시	51%
	읍/면	58%
시무교회 규모	29명 이하	56%
	30~99명	55%
	100~499명	61%
	500명 이상	69%

목회자가 생각하는 시무교회 고령친화성 평가, 고령 교인과 차이 있어!

- 목회자와 고령 교인에게 각각 시무교회와 출석하는 교회가 고령자 친화성에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느끼는지 물어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 고령 교인의 경우 '다양한 여가, 교육 및 활동 제공'과 '교회의 의사결정 및 사역 참여'에서 목회자보다 동의율이 더 높은 반면, 목회자의 경우 '고령자 대변/대표하는 조직' 등에서 고령 교인보다 높았다. 다만 전체 항목에서 두 그룹 간 격차는 10%p 이상 나타나 목회자와 고령 교인 간 고령친화교회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소속교회의 고령친화성 평가: 고령 교인 vs 목회자 ('그렇다' 비율, %)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장애, '인력 부족'과 '전문성'!

- 목회자가 꼽은 고령친화적 교회로의 장애요인은 무엇일까? '인력 부족'과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을 꼽은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재정 부족', '사역 콘텐츠 부족' 등의 순이었다.
- 교회 규모별로 보면 순위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29명 이하 교회는 '재정 부족'을, '30~499명' 규모의 교회는 '인력 부족'을, '500명 이상 교회'는 '경험/전문성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교회 규모에 따른 노인 목회의 필요 요인이 다름을 알 수 있다.

[표] 고령친화적 교회로 나아가기에 어려운 점 (답임목사, 상위 5위, %)

		1위	2위	3위	4위	5위
전체		인력 부족 (26%)	경험/전문성 부족 (25%)	재정 부족 (20%)	사역 콘텐츠 부족 (14%)	관심 및 인식 부족 (12%)
교회 규모 별	29명 이하	재정 부족 (28%)	경험/전문성 부족 (22%)	인력 부족 (21%)	관심 및 인식 부족 (15%)	사역 콘텐츠 부족 (8%)
	30~99명	인력 부족 (28%)	경험/전문성 부족 (20%)	사역 콘텐츠 부족 (20%)	재정 부족 (18%)	관심 및 인식 부족 (9%)
	100~499명	인력 부족 (34%)	경험/전문성 부족 (29%)	사역 콘텐츠 부족 (13%)	재정 부족 (12%)	관심 및 인식 부족 (10%)
	500명 이상	경험/전문성 부족 (41%)	재정 부족 (15%)	사역 콘텐츠 부족 (15%)	인력 부족 (13%)	관심 및 인식 부족 (10%)

이번호 요약

1. 고령 교인의 신앙, 목회자의 영향 압도적으로 높아

- 고령 교인은 신앙 성장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출석 교회 예배/목사님 설교(71%)'를 가장 많이 꼽았는데, 이는 전체 교인(37%) 대비 2배 가까이 높은 수치이다.

2. 고령 교인의 교회 사역 참여 욕구 더 증가해!

- 고령 교인의 사역활동 상한 연령에 고령교인은 77세로 응답해 일반 교인의 생각(69세)보다 크게 높았다.
- 은퇴를 앞둔 고령 교인의 경우 '은퇴 후에도 계속 사역하고 싶다'가 34%로 2년 전 조사 대비(25%) 크게 증가했다.

3.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 '소그룹'

-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희망사항으로 '같은 나이대 교인들과의 교제/소그룹 활동'이 54%로 가장 높았으며, 2년 전 조사 결과(47%) 대비 증가했다.
- 출석교회에 대한 고령친화성을 항목별로 평가했는데, 모든 항목에서 정기적 소그룹 참여자가 그렇지 않은 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강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아래 제목을 누르면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고령교인의 신앙과 시니어 목회 조사 결과 및 대한 발표회 (목회데이터연구소)
- ▶ [기사] 65세 이상 인구 '1천 만' 시대...'고령친화적 교회'가 뜬다 (CTS)
- ▶ [서적] 예수님과 동행하는 시니어교회 (유기성 목사, 두란노)

관련 성경 구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사도행전 2:17)

목회 적용점

시니어 성도들은 한국교회의 부흥을 경험한 세대이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고, 이제는 체력과 시간의 여유까지 있다. 이는 고령 교인을 돌봄의 대상이 아닌 사역의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변화가 필요함을 뜻한다. 고령화가 한국 사회보다 더 일찍 찾아온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령 교인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한 한국 사회까지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고령친화교회의 핵심 Key를 '소그룹'이라 지칭한다. 고령 교인이 교회에 바라는 점으로 소그룹을 응답했는데, 그 비율이 지난 2년간 더 증가하였다. 또 소그룹 활동하는 고령 교인이 그렇지 않은 고령 교인보다 소속 교회를 훨씬 고령친화적 교회로 인식하고 있다. 노년기는 돌봄과 영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가장 충족시킬 방법은 소그룹이 단연 효과적이다. 전 세대 중에서 고령층에서 소그룹 욕구가 가장 높다. 소그룹이 잘 안되는 교회의 경우라도 노인들만을 묶어서라도 소그룹을 시작해 볼 것을 권고한다.

다른 연령층과 달리 고령층은 신앙 성장 영향 요인으로 목회자 요인이 매우 크다. 다른 연령층은 가족,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다. 그런데 고령교인은 목회자 요인이 절대적이다. 목회자의 관심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고령 교인에게 행복감을 주고 삶을 변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1.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실태
2. 학교폭력 실태

넘버즈 칼럼

외로움의 시대와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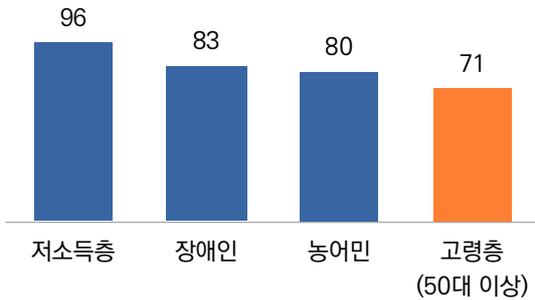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실태]

노인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정보 취약계층 중 가장 낮아

- 요즘은 핸드폰 어플을 통해 택시를 호출하고, 각종 은행 업무를 보며, 핸드폰 등을 통해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 정보를 찾아내는 일도 가능하다. 이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여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과정이 누군가에게는 서툴고 어렵다. 최근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이를 통해 고령층(50대 이상)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본다.
- 일반 국민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4대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농어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종합적으로 산출한 결과, 고령층은 71%로 다른 취약계층에 비해 가장 낮았다.

[그림]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 (일반 국민 100으로 봤을 때 기준 비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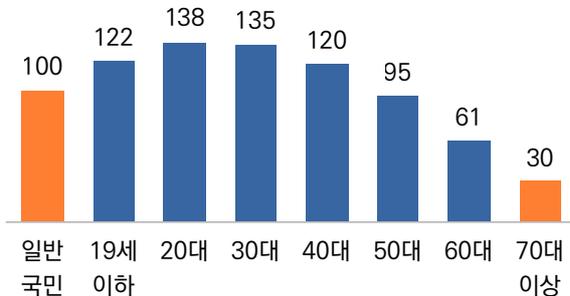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4.01.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 '유무선 정보기기 보유 여부'와 '인터넷 상시 접속가능 여부' 2개 항목간 가중치는 5:5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디지털 정보화 역량 수준 : 'PC 이용 능력'과 '모바일기기 이용 능력' 2개 항목간 가중치는 5:5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 : '유선 및 모바일 인터넷 이용 여부', '인터넷 서비스 이용 다양성', '인터넷 심화 활용 정도' 3개 항목간 가중치는 4:4:2이며 항목별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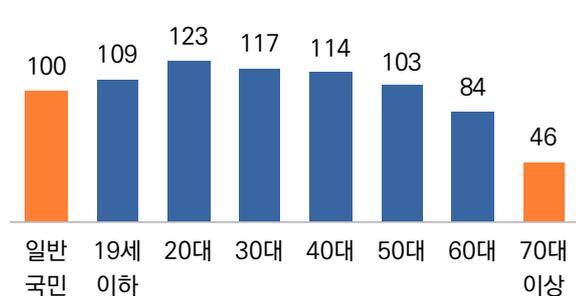
70대 노인의 디지털 정보 이용 능력, 일반 국민의 30% 수준에 불과!

- 위의 3가지 부문 중 '디지털정보화 역량'과 '디지털정보화 활용'에서 연령별 수준을 비교해 보았다. 먼저 컴퓨터/모바일 이용 능력 기준인 '디지털정보화 역량'은 20~30대가 각각 138%, 135%로 가장 높은 반면, 70대 이상은 30% 수준에 불과했다.
- 컴퓨터/모바일의 인터넷 활용 기준인 '디지털정보화 활용'은 20~50대까지는 100%를 넘는 수치를 보였으나, 60대 84%, 70대 이상은 일반 국민의 절반 수준(46%)으로 젊은 세대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



[그림]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 (%)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3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4.01.

Note) 역량: 컴퓨터/모바일 기본 이용 능력, 활용: 컴퓨터/모바일 인터넷 활용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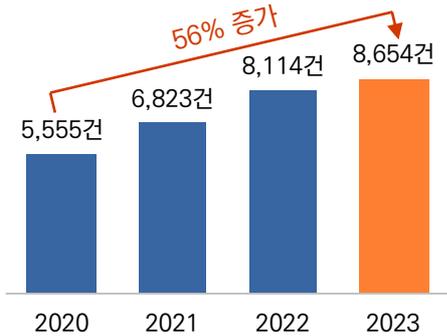


[학교폭력 실태]

학교폭력 신고 건수, 3년 사이 56% 증가!

- 서울경찰청이 최근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8,654건으로 3년 전 대비 56%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학교폭력 유형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유형은 '성폭력·성희롱'이었는데 2024년 상반기 기준 662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무려 162%나 증가했다.

[그림] 학교폭력 신고 건수 (서울)



[그림] 학교폭력 중 성폭력·성희롱 관련 신고 건수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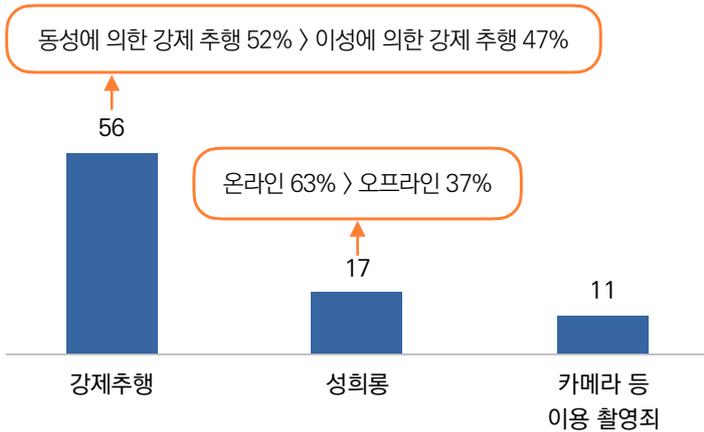


※출처 : 서울경찰청, '서울경찰,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07.22.

학교폭력 중 성희롱, 주로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경우 많아!

- 학교 성폭력·성희롱 피해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강제추행'이 56%로 가장 많았는데 '이성'보다는 '동성'에 의한 강제추행 비율이 더 높았고, '성희롱(17%)'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비율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학교폭력 중 성폭력·성희롱 피해 유형 (서울, 상위 3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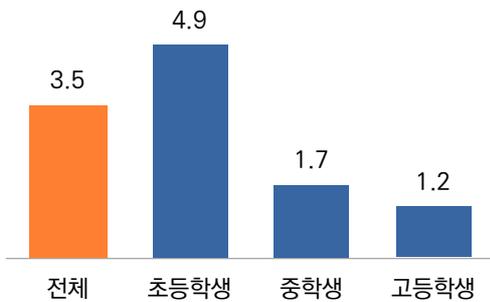


※출처 : 서울경찰청, '서울경찰, 상반기 학교폭력 및 청소년 범죄 분석결과 발표' 보도자료, 2024.0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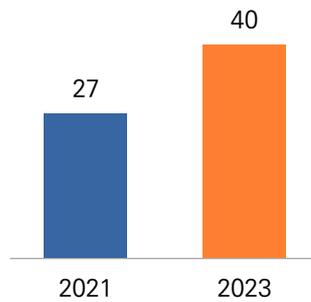
학교폭력 피해 학생 10명 중 4명, '자살·자해 충동 경험'!

- 이번에는 푸른나무재단(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서 발표한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피해자의 상황을 들여다본다. 전국 초·중·고 학생 8,59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은 전체 학생의 3.5%로 나타났고 초등학생이 4.9%로 가장 높았다.
- 이들 피해자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률은 40%로 2년 전 결과 대비 크게 증가했다.

[그림] 학교폭력 피해 경험률
(2023, 전국 초·중·고 학생, %)



[그림]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자살·자해 충동 경험
(학교폭력 피해 학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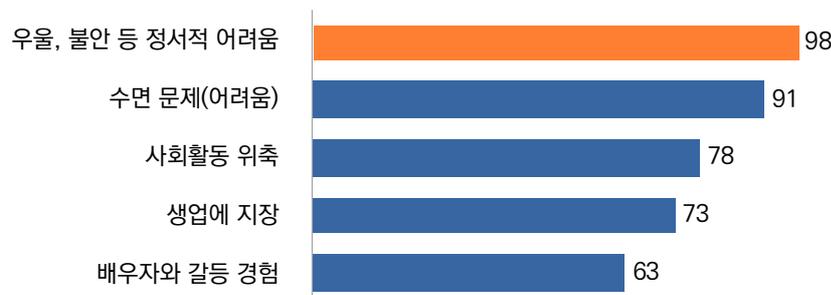


※출처 : 푸른나무재단,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07.24. (학생실태조사: 전국 초·중·고 학생 8,59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3.11.21.~2024.1.19.) (<https://blog.naver.com/bakbht/223523916946>)

피해 학생 보호자의 98%,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 경험해!

- 피해 학생뿐 아니라 학생 보호자들의 일상에도 학교폭력의 영향이 미치고 있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자의 대다수(98%)는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고, '수면 문제'를 경험하는 경우도 91%에 달했다. 또, '사회활동 위축(78%)'과 '배우자와의 갈등 경험(63%)' 등 학교폭력이 가정 경제와 부부 관계 영역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림] 자녀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보호자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 (학교폭력 피해 학생 학부모, 각 항목별 경험 비율, %)



※출처 : 푸른나무재단,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07.24. (학생실태조사: 전국 초·중·고 학생 8,590명 대상, 온라인 조사, 2023.11.21.~2024.1.19.) (<https://blog.naver.com/bakbht/223523916946>)

외로움의 시대와 교회

이은경 희망제작소 소장

기독교윤리실천운동(좋은나무)

인간은 외로운 존재로서 하나님과 홀로 마주하는 근원적인 고독함을 지니고 있다고 하지만, 오늘 우리 시대의 '외로움'은 사회적인 현상이며, 인위적이며 불공평하고 또 매우 광범위하다. 3년이 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인류는 격리와 단절을 동시에 경험했으며, 정보통신 기술은 빠른 속도로 비대면의 일상을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고 있다. '연결된 개인'의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과 활동 유형은 전통적인 의미의 직접적 연결과 교류의 경험을 점점 축소하거나 낡은 것으로 만들어 버린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중심의 관계 맺기는 편리하고 즉각적인 소통의 효능감을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파편화되고 단절된 집단화의 위험 속에서 경쟁적이고 휘발적인 콘텐츠 소비가 주는 무력함과 피로감 속으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

외로움을 광범위하고 인위적이며 불공평한 사회적 현상으로 만들고 있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철학자 김만권은 지적한다.¹⁾ 디지털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있는 소수(플랫폼 기업이나 그 소유자, 고도의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디지털 경제의 이득이 몰리며, 특유의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 그 이득의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지고, 분배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는 양극화된 채 단절과 불신을 가속화하고, 사람들은 쉽게 외로워진다는 것이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사무자동화와 같은 중숙련 일자리를 주로 대체할 것으로 예측되며, 배달·택배·분류 등의 저숙련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일자리만 양산하는 반면, 인공지능 정보의 정확성을 판별할 수 있는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이들에게 혜택이 커지는 방향으로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다.²⁾ 챗GPT와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의 등장 또한 외로운 개인들이 인간들 사이의 관계 대신 '인간과 기계의 관계'에 더 몰두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현실화하고 있다. 이렇듯 초연결망의 시대라 불리는 21세기는 가장 '외로운 세기'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류는 '론리 사피엔스'(Lonely Sapience)로 불리기 시작했다.

외로움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와 국가 공동체가 함께 다루어야 할 영역으로 점차 인식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외로움이 우울과 고립, 정신건강의 위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사회적 대응과 예방 체계를 만들고자 시도 중이다. 영국의 외로움부(Minister for Loneliness) 장관직 도입(문화·미디어·스포츠부 장관직과 겸직)과 '외로움 연례보고서' 활동이나, 일본의 고독·고립대책 담당실 출범과 중점 계획 수립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계보건기구(WHO)는 2023년에 외로움이 국경을 초월해 건강, 복지, 발전의 모든 면에서 영향을 미치는 공중보건 의제가 되고 있음을 선언하고, '사회적 연결 위원회'(Commission on Social Connection)를 만들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1인 가구의 증가와 혼밥·혼술과 같은 '나홀로 라이프스타일'의 확산과 더불어 외로움이 시민들의 생활 속으로 성큼 들어선 의제가 되고 있다. 또한, 세계 최저 수준의 낮은 출생률과 코앞으로 다가온 초고령 사회 진입은 외로움의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거나 심화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되는 외로움 관련 조사 결과들도 이를 뒷받침한다. 외로움과 연결성에 대한 한 국제 조사에서 한국인의 외로움 정도(57%)가 독일(27%)이나 스위스(32%)보다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갤럽인터내셔널/메타 공동 조사, 2023). (이하 생략)

*칼럼 전문은 '(사)기독교윤리실천운동(좋은나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cemk.org/37225/>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정치

[전국지표조사\(주요 4개 조사기관\) 리포트 제128호 \(2024년 8월 2주\)](#)

- 국정운영 평가, 외교정책 방향, 기후변화 심각성 인식,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에 대한 평가 등

사회 일반

[저소득층 41%만 국민연금 가입...2070년 노인 4명중 1명은 '빈곤'](#)

연합뉴스_2024.8.11.

[세계 최고 자살률인데...자살사망 지난해보다 10% 늘었다](#)

연합뉴스_2024.8.6.

[유명인 따라 자살 '베르테르 효과' 규명...자살 생각 1000배까지 늘기도](#)

조선일보_2024.8.1.

[국민 3명중 2명 "사회 불공정"...중장년, 청년보다 불공정 인식 ↑](#)

연합뉴스_2024.8.4.

[국민 58% "정치성향 다르면 연애·결혼 불가"](#)

조선일보_2024.8.5.

['외국인 증가'에 인구수 3년 만에 늘어...10가구 중 1곳 '홀몸노인'](#)

한겨레_2024.7.29.

[교사 10명 6명 "스스로 경제 지식수준 낮다고 평가"](#)

연합뉴스_2024.8.8.

[기후관련 인식 - WIN 다국가 조사](#)

한국갤럽_2024.8.1.

[\[기획\]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한 인식조사](#)

한국리서치 여론속의여론_2024.7.31.

[격화되는 갈등사회 "결국은 공동체다" \(2024 사회적 갈등 및 공동체 의식 관련 조사\)](#)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_2024.7.30.

청년 · 청소년

[오마카세 즐기다 1900원 맥줏집으로... 짠내나는 짠한 MZ](#)

국민일보_2024.8.8.

[스마트폰에 갇힌 Z세대... 우울 먹고 자란다](#)

국민일보_2024.8.9.

경제 · 기업

[상반기 육아휴직자 3명 중 1명은 '아빠'...男 비중 역대 최고](#)

연합뉴스_2024.8.4.

언론 보도 기사 큐레이션

*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중소기업, 작년 자금 77% 은행대출로 조달...담보대출금리 4.57%](#)

연합뉴스_2024.7.30.

[상반기 국세 10조 덜 걷혔다...법인세 '16조 핑크'가 결정타](#)

중앙일보_2024.7.31.

[“중진국 → 고소득국 한국, 모든 개도국의 필독서... 31 전략 효과”](#)

국민일보_2024.8.2.

[키오스크, 서빙 직원 11% 고용 감소 유발](#)

매일경제_2024.8.1.

[중장년층 “OO세까지 일하고 싶다”...양질의 일자리는 태부족](#)

매일경제_2024.7.31.

국제

[中 극심한 취업난에 “기술 배우자”...전문대 진학 인기](#)

매일경제_2024.8.1.

[전세계 인구 11명 중 1명은 굶주림에 직면](#)

데이터숨_2024.7.30.

건강

["시력저하, 고콜레스테롤 등 14개 요소 관리시 치매 절반 예방"](#)

연합뉴스_2024.8.1.

[밀리니얼 세대 특정 암 발병률, 베이비붐 세대의 3배...왜?](#)

동아일보_2024.8.1.

기독교 · 종교

[국민의 절반 이상 종교계 신뢰할 수 없다는데... “한국교회, 나눔과 섬김 사역에 더욱 힘써야”](#)

국민일보_2024.8.7.

[“나이는 숫자... 액티브 시니어, 사역에 목마르다”](#)

국민일보_2024.8.1.

[한국 속 세계교회 시대 (국민일보)]

[〈상〉 러시아·필리핀인에 본당 내줘... 한국인은 식당서 예배](#) _2024.08.02.

[〈중〉 은퇴 선교사들이 한국어 수준급 교육... 이주민 고충 던다](#) _2024.08.05.

[〈하〉 유형별 맞춤 사역으로 ‘샐러드볼’ 사회 이루자](#) _2024.08.06.

후원

후원 교회

강남중앙침례교회, 거룩한빛광성교회, 경동교회, 고현교회, 구파발교회, 과천교회, 광주다일교회, 광주무돌교회, 광주벤티교회, 꿈마을엘림교회, 꿈의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노량진교회, 내동교회, 내일교회, 다운교회, 당진동일교회, 더세움교회, 덕신제일교회, 대구칠곡교회, 대구평강교회, 대덕교회, 대전대흥침례교회, 대전선창교회, 대전은평교회, 대신교회, 도원동교회, 동부광성교회, 동춘교회, 동행한빛교회, 둔산성광교회, 라이트하우스교회, 마산성산교회, 만나교회, 명성제일교회, 문호교회, 미디어이터교회, 밀양남부교회, 범어교회, 빛과소금교회, 빛소금교회, 브니엘감리교회, 사랑감리교회, 산서울교회, 산성교회, 삼덕교회, 삼천포교회, 상도중앙교회, 상암교회, 서대문교회, 서영교회, 서울동성교회, 서울드림교회, 서울서교회, 서울서문교회, 서울은천교회, 서울중앙교회(종로), 서울중앙교회(영등포), 서울홍성교회, 서현교회, 성락성결교회, 소망교회, 송내교회, 송학대교회, 수원중앙침례교회, 순복음대구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용산교회, 신일교회, 새에덴교회, 새중앙교회, 세광교회, 아름다운교회, 아현장로교회, 안산제일교회, 안성제일장로교회, 안양감리교회, 에덴교회, 여의도순복음교회, 연동교회, 영락교회, 예은교회, 예향교회, 오류동성결교회, 오류교회, 올리브교회, 우정교회, 울림교회, 원동교회, 은광장로교회, 은평교회, 이룸교회, 이리신광교회, 일산광림교회, 잠실교회, 제주연동서부교회, 조양중앙교회, 주안장로교회, 중동교회,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목동), 진주삼일교회, 진주성결교회, 충신교회, 창동염광교회, 창일교회, 토평교회, 포항대도교회, 포항제일교회, 하나마을교회, 한국중앙교회, 한밭제일교회, 한소망교회, 한신교회(분당) 할렐루야교회, 해전교회, 혜성감리교회, 화전중앙교회, 희성교회 (가나다 순)

후원 기관

기독교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중부연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아대책, 마을학연구소, AIB과후교회학교, (사)교회갱신협의회, (사)아시아미션, 서대문ESF,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예장 통합 목회자 모임), 지앤컴리서치, 한국교회탐구센터, (사)한국그리스도사상연구소,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한목회, (재)한빛누리, 한일연합선교회, CBMC광주지식포럼, CBMC여수비즈니스포럼, CCC사역연구소, GoodTV (가나다 순)

후원 기업

(주)가인지캠퍼스, (주)그랑블루, 메가리서치, (주)소프트자이온, 스페이스허브, (주)시스코프, (주)참든건강과학, (주)참물류, (주)하츠/(주)벽산 하은커넥터(주) (가나다 순)

후원 명단 안내

후원자 명단(개인)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링크 클릭](#)

신규 후원

구파발교회(담임목사 김춘곤), 한밭제일교회(담임목사 김종진)

(매월 신규후원자는 당일 마지막 주에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드립니다.)

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후원 방법 (국내) <

본 연구소는 주간리포트를 제작하여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에 무료로 제공하며, 100% 후원을 통해 운영됩니다. 이 사역에 동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소 후원은 공익재단을 통해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 발행 후원 계좌 및 안내
→ [링크 클릭](#)

계좌 : 국민은행 343601-04-128846
(재)한빛누리(목회데이터연구소)

2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직접 계좌 송금으로 후원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계좌 : 하나은행 203-910046-18604
(목회데이터연구소)

> 후원 방법 (해외) <

외국에서페이팔을 통해
후원해주실 수 있습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미션

우리는 세상과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슈, 사고방식, 그리고 트렌드를 한국 교회 목회자와 리더십에게 알리는 '정치 중립/가치 중립의 공정한 팩트 탱크'로서, 사회 여론 조사, 공공 통계 등 데이터 기반의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교회-사회의 대화와 소통을 풍요롭게 하고 더욱 견고하고 온전한 의사 결정을 위해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제공합니다.

협력기관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재)한빛누리, 한국교회탐구센터, (주)기독교텔레비전(CTS),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주)지앤컴리서치

섬기는 이들

김지철 목사 | 운영위원장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이사장)

류영모 목사 | 후원이사회 회장(한소망교회 담임목사, 전 한교총 대표회장)

신원하 원장 | 자문위원장(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만든 이들

지용근 |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 |

김진양 | 목회데이터연구소 부대표 |

김기혁, 민선영, 유영민, 김찬솔, 한미경

MOU 기관

(사)교회갱신협의회, 교회성장연구소,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 기독교한국침례회총회, 기독교윤리실천운동, 기독교통일지도자 훈련센터(송실대학교), (재)기독교선교햇불재단, 기아대책, (사)더조은세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교육원(고신),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문화선교연구원, 미래목회와말씀연구원,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사)새길과새일, 아드폰테스, 아크연구소, (사)아시아미션, 크리스찬타임스, (재)하나복네트워크, 한국IFCJ가정의힘, 한국교회 선교연구소, (사)한국교회 지도자센터(한지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한목협),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KICE),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사)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 한일연합선교회

해외 : 미주 MiCA(Missional Church Alliance), LA AEU미성대, 캄보디아기독교연구소

Tel. 02-322-0726

E-mail. mhdata@mhdata.or.kr

Addr. [06250]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8길 17 현빌딩 2층 201호

Copyright © 2019 목회데이터연구소. All Rights Reserved.